미백화장품 특허 "태평양-LG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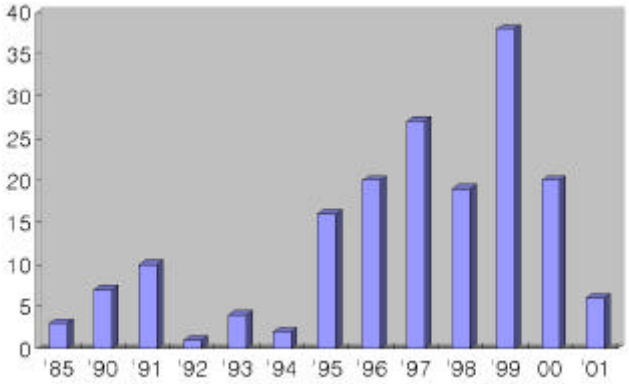
태평양 14%에 LG 13% 막상막하 … 천연물질 이용 미백기능 관심

최근 미백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화장품은 피부의 변색을 방지하거나 변색된 피부의 색을 엷게 해 기미·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국내에서는 화장품 총 매출규모 약 3조원 중 940억원으로 3%에 불과한 상태이다.

하지만, 미백화장품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는 1995년 이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백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백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추이



특허청에 따르면, 미백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 중 한국이 69%, 일본이 14%인데 비해 미국이나 유럽은 17%에 불과해 서양 여성보다는 아시아 여성들이 미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위 5개 출원기업이 전체 출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평양이 14%(25건)로 1위, LG가 13%(23건)로 2위, 다음이 코리아나 16건, 로레알 10건, 유니레버 9건, 제일제당 7건, 시세이도 6건, 나들이 6건 순이다.

미백 활성성분별로는 천연식물 추출물이 44%, 신규 화합물이 25%, 기존 미백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C 유도체 등 그 밖의 물질이 31%로 나타났고, 천연식물을 통한 새로운 미백물질의 탐색은 국내기업이 특히 주력하는 분야이나, 외국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백화장품 시장 성장률

화장품 관련 특허 총 출원건수 중 기능성 미백화장품 특허 출원비율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2%에서 1995년부터는 6%로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불화장품의 단풍잎 추출물(등록번호 298132호) 출원과 같이 미백은 물론 노화방지 효능까지 겸한 복합기능 성분이 출원되고 있어, 복합기능을 희망하는 소비자 욕구와 더불어 관련기술의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추출물 관련 특허 출원현황

구 분	출원인	천연추출물의 종류
내국	태평양	닥나무, 상백피, 오배자, 안선약, 개자, 후박, 국화, 명일엽, 양강, 호장근, 소나무속식물, 대황, 백출, 포도, 천련자, 파고지, 오수유+천련자+익모초+일당귀+감초, 삼칠근, 무이. 학슬, 감송향, 대계근, 유근피, 삼내과, 몰약+파고지+오수유+천련자+익모초+일당귀씨
〃	LG생활건강	반하, 은행엽, 천문동, 백작약, 백합, 현삼, 영릉향, 사삼, 백출, 백질려, 선학초, 지정, 와송, 신곡, 모과초, 석룡예, 해백, 낭독, 원화, 삼칠, 청과, 석곡, 시체, 마발, 랄료, 목근피, 백교향, 금사도, 미인초
〃	한불화장품	단풍잎, 상황버섯, 검은콩, 박
〃	코리아나	율피, 녹두+AHA, 녹두+낙엽송, 상지
〃	나들이 화장품	쌀, 배양유산균
〃	제일제당	실리, 아카시아, 송이+기린초, 황금+목단피+회화송
〃	애경산업	죽내피, 바다제비집+알부틴
〃	해태제과	소나무, 잣나무의 잎, 껍질, 쑥
〃	한중엠에스	오미자
〃	바이오메딕스	짐네마
〃	참존화장품	창이자
〃	개인	도토리, 대두흰생콩가루,포도+인삼, 인삼알카로이드, 볶은 참깨+살구씨+어성초
외국	메이지뉴교	붉은 겨
〃	산쇼오 세이야꾸	태반+간장 추출물
〃	암웨이	아세로라 버찌, 애기월귤+환원제
〃	로레알	뽕나무+골무꽃 추출물+살리실산 유도체
〃	죤슨 앤 죤슨	콩과식물,변성되지 않은 콩

미백화장품의 원료 개발에 있어 천연식물에 대한 연구는 우리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원료개발이라는 점과 국내 소비자들의 식물성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맞물려 국내 화장품 개발의 주력분야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속적인 특허 출원 증가가 전망된다.

특허청은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소망을 반영해 새로운 기술로 미백효과와 노화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의 화장품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9>